

금리인상·대출규제 ‘허들’, 디지털·글로벌로 뛰어넘는다

W 금융 예측 2018

① 시중은행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 등 경영전략 ‘디지털·글로벌’ 쏘아 빅데이터 마케팅·슈퍼앱 등 활용

무술년(戊戌年)에도 금융환경의 격변이 예상된다. 시중은행은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실적 잔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최고금리 인하, 총량 규제 등에 따라 시장 재편이 예상된다. 업력이 얼마 되지 않은 P2P(개인 간) 금융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은 각종 규제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에 금융사들은 각각 수익 방어를 위한 활로를 찾아 나섰다. 메트로신문이 업권별 2018년 이슈를 예측해 본다.

(편집자주)

올해 시중은행의 영업 환경이 밝지만은 않다. 대출을 규제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수익성장의 ‘허들’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회성 요인도 사라져 지난해 만큼 실적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기에 때문이다.

시중은행 수장들은 각종 허들을 넘기 위한 2018년 경영 전략으로 ‘디지털·글로벌’을 꼽았다.

이미 영업의 방침이 비대면으로 이동한 만큼 디지털금융을 강화해 시장의 선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



한영주 KEB하나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각사

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장할 계획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CEO(최고경영자)들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 전략으로 ‘디지털·글로벌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2018년을 ‘디지털 영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과 슈퍼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위 행장은 지난 3월 취임 직후 디지털 전략본부를 신설해 모바일 플랫폼 개편 작업에 나섰다. 오는 2월 중 통합 모바일 앱 ‘슈퍼앱(가칭)’을 출시할 예정이다.

슈퍼앱은 ‘신한S뱅크’, ‘씨니뱅크’ 등 기능별로 흩어져 있던 앱 6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앱 하나로 부동산, 쇼핑, 교통, 간편결제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슈퍼앱에는 증강현실(AR)을 통한 금융상품 소개 등의 다양한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올해 5대 경영 전략 중 하나로 ‘차별화된 금융플랫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시대 선도’를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위비뱅크’, ‘위비톡’ 등 ‘위비플랫폼’을 완성한 데 이어 오는 2월 유니스 서버 기반 플랫폼으로 구축한 차세대 전산 시스템 ‘위니(WINI)’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위니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구현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인 KB국민은행장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을 내재화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해 비대면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개인과 기업 고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융 플랫폼 생태계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스마트

고객본부가 비대면 마케팅과 고객관리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사람 중심의 디지털 비즈니스’를 통해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디지털 사업 강화를 위해 ‘DT랩’을 신설하고 삼성전자 출신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고위직으로 영입했다.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 ‘글로벌 금융’도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현지화 영업을 확산해 ‘진정한 글로벌뱅크’로 도약하기 위해 핵심시장에선 압도적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유망시장엔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현지 기반 맞춤형 영업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를 2017년 말 301개에서 올해 말

5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KB금융은 아시아시장을 중심 축으로 글로벌 진출 기반을 다져 동남아시아 현지에 특화된 금융모델을 통해 시장지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도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통합 디지털 자산 플랫폼인 GNL 컨소시엄을 이용해 20개국 이상의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발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금융사들이 디지털·글로벌 금융 강화에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신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2016~2017년과 달리 2018년엔 은행 성장률과 NIM(순이자마진) 개선 폭이 크지 않고 이익 모델도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연구원은 ‘[2018 산업 전망] 은행/신용카드-Underperform 종목들에 초과상승 기회 있다’ 보고서를 통해 “시중은행들은 2017년에 일회성 수익 요인들이 상당했던 만큼 2018년엔 전년 대비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그동안 은행들의 대출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던 소호(SOHO) 중 부동산산업대업종에 대한 여신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대출 성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은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의 2017년 연간 실적은 10조1490억원으로 전망한 반면, 2018년 연간실적은 9464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재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코스닥지수가 새해 첫 개장일인 2일 14.03포인트 오르며 812.45로 장을 마감했다. 10년 만에 최고치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새해 첫 날 코스닥 800 돌파... 10년 만에 최고치

코스닥이 새해 첫날 증가 기준 800을 넘어서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코스닥 시장이 1월 효과와 더불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코스닥은 장중 한때 813.4까지 넘어서며 강세장을 연출했다. 이날 장은 전 거래일 대비 14.03포인트(1.76%) 오른 812.45에 마감했다. 증가 기준으로 코스닥이 800을 넘어서는 것은 지난 2007년 10월 이후 10년 3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외국인 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신라전,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 등 바이오 업종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스닥이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1월효과와 더불어 정부 정책 이슈도 증시에 긍정적이어서다.

1월 효과는 증시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다. 또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를 뜻하기도 한다. 실제 2013년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곤 1월 코스닥 상승률이 코스피를 웃돌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확박해진 살림살이... 3040, ‘보험’부터 깬다

30·40대 빈곤율 최근 동반 상승
지난해 생명보험 해지 660만 건

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 ‘한국경제의 기둥’으로 꼽히는 30대와 40대의 빈곤율이 최근 들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와 자녀 사교육비에 더해 근래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같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견디지 못한 30·40대가 가계경제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보험을 해지하는 등 불가피한 선택을 이어간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한국은행이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보험해지 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지난 2015년 8.9%에서 2016년 9.1%로 상승했다. 40대 역시 같은 기간 빈곤율이 10.8%에서 11.3%로 올랐다. 특히 40대의 경우 전체 연령대에서 60세 이상(1.1%포인트)에 이어 빈곤율 증가 폭이 0.5%포인트로 가장 컸다.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눈 비율을 일컫는다. 빈곤율이 높을수록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수입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었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40대의 평균 부채는 85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50대(8524만원)에 이어 6872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대비 평균 부채

20·30·40대 시장소득빈곤율 추이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 소득) 기준 빈곤율



자료/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증가율은 30대가 16.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급증한 가계부채에 원리금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최근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서민들은 ‘최후의 보루’인 보험마저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해지 건수는 660만 건에 육박하는 등 최근 5년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 속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결국 보험에까지 손을 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모두 659만3148건으로 지난 2011년(427만7775건) 대비 무려 54.1%나 증가했다. 이 중 자발적 해지는 438만9812건으로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효력 상실(220만3336건) 대비 배가량 컸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악화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금리 상승 국면에 접어들어 따라 보험 해지 건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함께 증가한다. 금리 상승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늘려 결국 보험계약 해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그동안 냈던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하되 한 번 가입한 보험은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